

Ⅲ. 斑點齒의 豫防

圓光大學校 齒科大學

李 光 熙

1. 반점치의 특성

우리가 사용하는 음료수 중에 불소가 과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일종의 법랑질형성 부전이다. 표면에 흰색의 반점이나 황색 또는 갈색의 반점이 불규칙하게 있는 치아와, 전체의 치면이 백지와 같은 치아로,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반점치는 개체의 정서발달에 장애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혼기의 여성에게 크게 문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점치는 법랑소주 사이에 있는 결합질의 결합으로 생기는 것이며, 법랑소주간의 빈 공간에 갈색소가 침착하는 것이고, 갈색소는 반점치의 약 40%에 침착되나, 침착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나타날 정도로 침착되고, 특히 상악문치와 견치의 순면에 많이 침착된다.

반점치와 불결한 구강위생상태 간에는 관련이 없으며, 정상치아에 보다 치아 우식증이 더 발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치아우식증에 이환되면, 예후가 좋지않고, 치아가 조기에 상실되는 경향이 있다.

반점치는 일반적으로 9세 이상의 아동과 청년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아동의 출생지와 거주기간이 반점치와 관련된다. 동시에, 반점치는 출생 후 12세까지 법랑질이 형성되는 기간중에 반점치가 발생되는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서만 발생된다. 반점이 유치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고, 영구치에 주로 생기며, 영구치에 생기는 반점은 반점치가 출현하는 지역의 토착민에서 가장 심하게 생기고, 법랑질이 발육하는 소년기에 반점치 출현 지역으로 이주한 아동에서는 늦게 발육된 치아에 한하여 생기며, 사춘

기나 그 이후에 이주한 자에서는 전연 생기지 않고, 거주기간이 같은 사람에서도 반점도에 개인차가 있으며, 일단 생긴 반점은 영구적이고, 반점치 출현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다.

반점치가 출현되는 지역에서도 독립적인 식수원으로서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가족에서는 반점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보아, 특히 깊은 지하수와 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음료수원을 변경시킴으로써 반점치가 출현되기도 하고, 출현되지 않기도 하는 예가 있다. 수질검사 결과 반점치의 출현과 반점치 발생지역 및 반점치 비발생 지역의 음료수중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염소, SO_4 , CO_3 , HCO_3 , NO_3 의 농도와는 일관성있는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2. 반점치의 예방

음료수중의 불소이온의 농도를 적정농도로 낮추어 줌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음료수 중 불소이온을 치아 우식증의 발생을 예방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점치의 발생을 예방하면서도 치아 우식 예방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농도인 1.0 ppm의 농도로 불소이온농도를 조정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라 하겠다. 이러한 반점치 예방법을 飲料水混合法이라고 하는데, 불소이온농도가 높은 음료수와 불소이온농도가 낮은 음료수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불소이온농도가 1.0ppm이 되도록 조정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 음료수 혼합법은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의 반점치 발생지역

지	역	비	고
충청북도	증원군 상모면 수안보리 온천1구	수안보온천지역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하만월리	비온천지역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읍 복명리	유성온천지역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읍 장대리	유성온천지역	
전라북도	김제군 백구면 유강리 통자포	비온천지역	
전라북도	정읍군 영원면 풍월리 신월	비온천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금촌면 사전2동 서편부락	비온천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면 온정리	백암온천지역	

飲料水代置法이란 불소이온농도가 낮은 음료를 불소이온농도가 높은 음료수 대신 공급해 주므로써 반점치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역사회의 천연자원인 불소를 이용하지 않는 결과로 치아우식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상적인 반점치 예방방법으로 볼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의 8개 지역에서 반점치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반점치의 출현은 음료수 중의 불소 함량을 낮추어 줌으로써 방지될 수 있으나, 음료수중의 불소는 치아우식 발생을 예방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점치의 발생은 방지시키면서도 우식 예방효과는 지속시킬 수 있는 농도인 1.0ppm의 농도로 음료수 혼합법으로 조정해 주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구강보건관리 방법이라 하겠으며, 지역사회에 천연자원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제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음료수혼합법을 채택하지 않고 음료수 대체법을 채택한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한치과교정학회

제19회 학술대회 및 제24회 정기총회 개최공고

대한치과교정학회 제19회 학술대회 및 제24회 정기총회를 아래와같이 개최함을 공고함.

- 다 음 -

- 일시 : 1986년 11월 15일(토)
- 장소 : 서울 올림픽아호텔 회의실
- 안전 : 1) 임원개선
2) 예산안 심의
3) 기타 일반안전 토의

이상

1986. 10.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남 동 석